

草·麻鞋에 관한 研究

A Study on Shoes Using Straw and Hemp

上智專門大學 衣裳디자인學科

專任講師 金芝嬪

Dept. of Fashion Design SangJi Junior College

Full time Instructor : Kim Ji Hee

目 次

- | | |
|---------------|---------------|
| I. 序 論 | Ⅲ. 隣接兩國의 草·麻鞋 |
| Ⅱ. 우리나라의 草·麻鞋 | A. 中國 |
| A. 文獻的 考察 | B. 日本 |
| B. 風俗史的 意味 | Ⅳ. 結 論 |
| C. 形態的 分類 | 參考文獻 |

<Abstract>

Though many thousands years of long history of Korea, many changes have taken place in politics, economy, culture, religion, arts and science, but the writer, in this thesis, has traced historical development of footwear that common people use as one of necessities of human life. Since the footwear is included in clothing, the history of footwear may be also traced along with the history of clothing.

In the beginning, the shoes were only made to serve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feet. As time passed by, the purpose gradually developed the skill in making shoes.

Taking a historical of straw and hemp into consideration, I have studied on shoes using straw and hemp in this thesis.

The history of straw and hemp can be retroacted to the beginning stage of the human culture. These straw and hemp have been developed over and over again for a long time and it has its own distintion inquality so that these refined products used by noble men and these careless ones were used by the common people.

In Japan, these straw and hemp were effected by the influence of typical continental climate, made characteristic shape.

Since 1930s rubber shoes were introduced to Korea and traditional Korean shoes came to disappear in Korean market. Because of this, we now can see the traditional Korean shoes only in the windows of Museum.

I. 서론

人類 歴史가 시작되면서 부터 人間이 살아가는데 衣·食·住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衣'는 신체보호 또는 수치관념에 의해서 발생되었으며 신은 발을 보호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사용해왔다. 따라서 신은 인간생활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實用과 機能美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걷기 편하고 아름답게 보이고져 여러 종류의 신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전달된 것이다.

신이 原始的代에는 짐승의 가죽이나 풀잎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지극히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단순히 자연환경 속에서 발을 保護하고자 하는데 그 첫번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形態·材料가 그 特性을 달리하면서 발의 保護만이 아니라 階級과 身分의 차이를 표시한 服飾의 한 부분으로써 신발의 종류를 달리하였다.

이러한 種類中에 草·麻鞋의 歷史는 人類文化의 初期段階까지 逆及된다. 이것은 材料의 活用이 용이하고 구하기 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라져가는 傳統工藝品의 하나인 草·麻鞋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 의미에서 歷史와 形態 및 그 風俗史의 意味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써 잊혀져가는 우리의 工藝品을 재인식하고 우리의 것에 대한 保存과 繼承뿐 아니라 이를 發展시켜 후대에 널리 認識시키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연구 범위 및 방법은 여러문헌을 기초로 하여 그 기원을 찾고 시대적으로는 古代에서 開化期까지를 다루고자하며, 또한 형태적인 분류를 통하여 草·麻鞋의 형태 고찰 및 제작 방법을 살펴보고, 中國과 日本의 草·麻鞋과 비교하고자 한다. 문헌자료는 신의 전반적인 문헌이 없으므로 服飾의 한 부분으로 복식사적 문헌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II. 우리나라의 草·麻鞋

A. 文獻的 考察

衣服에 南方系와 北方系가 있는 것처럼, 신에도 볼을 감싸넣어 防浸·防寒에 적당한 北方系와 발의 바닥을 보호할 목적인 소위 샌달 형식의 南方系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조건때문에 오래전부터 混用되어 왔다.

신은 장식의 목적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 ① 외상에서 발을 보호한다.
- ② 발의 浸潤이나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 ③ 防寒·放熱의 기능이 있다. 발 전체를 싸는 신은 防寒의 의미가 있고, 放熱의 기능은 예를 들어 열이 많은 해안의 모래 땅을 맨발로 걷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보면 이해된다.
- ④ 발과 대지와와의 충격을 완화해 준다.
- ⑤ 보행의 기능에 적당하다.*

1. 朝鮮時代 以前

古代로부터 우리나라의 履物은 대체로 皮革製의 '靴'계통과 布帛이나 藁製의 '履'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皮革製의 靴는 防濕·防寒에 적당히 발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에 편리하고 특히 기마용에 적당하여 北方 遊牧 民族形이고, 布帛이나 藁로 만든 履는 南方 農耕 民族形으로 우리나라의 地理的 風土의 조건에 적당하여 三國時代 以前 古代로부터 있었다.*2 일상 생활에 기마의 풍속이 없는 농경 사회의 履物은 布帛, 藁, 木 등을 재료로 사용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며 대량의 皮革를 소비하는 履物은 그다지 사용되지 못하였다.*3

따라서 우리나라의 履物은 草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自然物에서 얻어서 발에 신는 것기 보다는 발을 담는다는 뜻에서 겨우 발이 걸릴 정

*1 「服裝大百科事典」(下) 被服文化協會編 昭和46 p.78.

*2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古代編 文化出版局 1981 p.296.

*3 앞글 p.297.

도로 엮어 신었으리라 생각된다.⁴⁾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傳統과 普遍性을 지닌 草履 즉 짚신에 대한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晉書 東夷 馬韓條』 『東國通鑑』에 “男子들은 魁頭 露紒를 하고 布袍를 입고 草躡을 신는다” 『通傳』 『翰苑』 『增補文獻備考』에 “馬韓人은 草履를 신는다”라고 하여 馬韓 지방에서 「草躡」, 「草履」를 신은 기록이 보인다.

辰韓은 모든 면에서 馬韓에 부속되어 있으며 역시 草履를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弁韓도 草履를 신었다고 한다.⁵⁾

扶餘는 本來 白衣를 숭상하면서 옷옷으로는 흰 도포를, 밑에는 바지를 입고 草履를 신었다.⁶⁾

三國時代에는 高句麗나 百濟는 문헌에는 보이지 않으나, 百濟는 馬韓의 뒤를 이어 풀을 材料로 만든 草履, 草躡, 草躡蹠 등이 있었으리라 본다.

新羅時代에는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條』에 “眞骨 大等の 履는 가죽을 실같이 만든 皮絲와 麻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四頭品은 소가죽과 麻 이하의 것을 사용했으며, 平人도 麻 이하의 신을 사용...”라고 하여 「麻履」가 보이며 麻 이하의 신이라 함은 草나 藁를 사용한 것이라 보아진다.⁷⁾ 또한 『三國遺史』에 「芒鞋」등이 보인다.

高麗時代는 문헌 자료가 희박하지만, 『宣和奉使 高麗圖經』에 “草履之形 前低後昂 形狀詭異 國中無男女 少長悉履之”라 하여 草履의 형태가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그 모양이 괴이하며, 男女老少 할 것 없이 다 신는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평상시의 신은 모두 草履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高麗時代의 草履로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 形態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오늘날 내려오는 짚신의 형태에서 뒤축을 조금 높게 만든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高麗圖經』 19권 民庶條에 “進士의 革履, 民長의 烏革句履”, 21권에 “散員의 革履, 人吏의 烏革

句履, 房子の 阜履”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公度에서는 가죽신을 신었고 공청 밖에서는 男女老少 모두 짚신을 신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朝鮮時代

朝鮮時代의 신은 性別, 階級別로 形態 및 裝飾이 다르며 세련미를 갖추게 되었고 그 용도에 따라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庶民들은 高麗時代에 사용하던 짚신類가 그대로 답습되었다.

草·麻製로 된 신은 크게 草鞋와 麻鞋로 구분된다. 이들은 마른신으로 一般 男女에게 가장 흔히 편하게 사용되었으나 그 나름대로 우열이 있어서, 品質이 좋고 곱게 엮어진 精製品은 兩班家에서 사용되고 조잡한 것은 庶民이나 賤民들이 신었다.

가) 草鞋

통칭 짚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에는 「짚신」 「왕골 짚신」 「부들 짚신」 「고은 짚신」 「엄 짚신」 등의 이름이 있다.

이 중 왕골(莞草)이나 부들(香蒲)을 가늘게 꼬아 촘촘하게 삼은 짚신으로 결이 매우 고운 上品을 「고은 짚신」이라 하였다. 「엄짚신」은 喪制가 초상때부터 卒哭때까지 신는 짚신으로 충을 드문 드문 땀고 흰 종이로 돌기를 감았는데 菅菲 菅履라고도 하였다.⁸⁾ 또한 菅履는 왕골로 삼아 가난한 사람들이 喪服에 사용하였다.

『家禮』에 “齊襄에는 역시 疏履 혹은 麻履이고 大功과 小功에는 白布로 한 신이다”라 하고 있다.

「菅履」는 菲를 사용하고 없을 때는 藁를 대신하기도 한다. 이때 풀겉질이 바깥으로 向하게 하여 重喪임을 나타낸다. 「疏履」는 鹿麁荊類로 만들어 없으면 草나 麻로 만들고 이때의 풀겉질은 신의 안쪽으로 向하게 한다. 喪服의 풀겉질이 外向하는 것은 喪冠의 外畢이나 喪衣의 外縫과 同一한 취지에서 제작된 것이라 생각되며 평상복과의 구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朝鮮時代의 諸禮書에서도 中國의 喪履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古人들의 의견을 참고 해볼때 菅履나 疏履를 士大夫家에서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

*4 석주선. 「韓國服飾史」 寶晉齋, 1971 p.456.

*5 앞글,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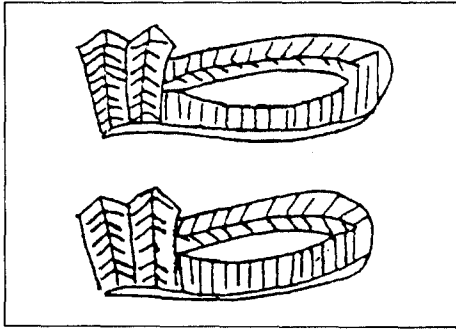
*6 앞글, p.16.

*7 유희경.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敎 出版部. 1983.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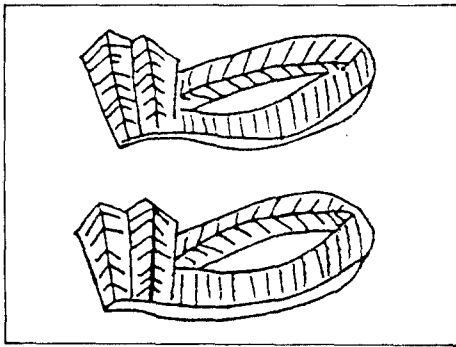
*8 앞글, p.384.

왔던 것 같다.

宮中에서는 白皮靴·白綿靴을, 일반 사가에서는 주로 짚신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국속에 따라 주로 사용한 신이기 때문이다. 喪履는 男女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⁹⁾



(그림 1) 菅履 「三才圖會」



(그림 2) 疏履 「三才圖會」

『星湖僊說』에 “왕골로 삼은 신(菅履)과 짚으로 엮은 신(芒躡)은 가난한 자가 늘 사용하는 것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漢文帝는 不借를 신고 신하의 조회를 받되 喪履와 이름이 같은 것을 꺼리지 않았다 하니…… 그런데 지금 선비들은 고운 삼으로 만든 미투리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라 하였는데, 「不借」란 짚신의 별명으로 천한 물건이므로 남에게 빌지 않아도 구비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름 붙은 것이다.¹⁰⁾

『詩經』에 “…짚신을 동여매어 서리뻘고 다니네…”¹¹⁾ 고시조에 “…신은 신으로는수놓은 草鞋며 이런 것들을 하여 줄까?…” “홍단을 다 떨티고 독향 망혜 집고 서고…”라 하여 「짚신」, 「망혜」 등으로 草鞋가 나타나고 있다.

나) 麻鞋

이는 통칭 「미투리」라고 하는 것으로 「삼신」 「절치」 「탑골치」 「무리 바닥」 「紙총 미투리」 등의 이름이 있었다.

「미투리」는 生麻(생삼)으로 삼은 신으로 신바닥이나 종이 조밀하고 곁이 매우 곱다. 짚신보다는 고급 품이며 양반과 상인들 사이에서 널리 애용되었는데 차츰 사치스러워져 탁(楮), 청울치(葛根纖維), 백지(白紙), 면사(綿絲)를 사용하게 되었고, 날(經)도 六經 내지 八經인 것이 나오게 되었으며 八經 杼塗의 「무리 바닥」은 과연 精製品이라 할만 하였다. 특히 다양한 무늬를 염색하여 만든 것은 「꽃 미투리」라 하는데, 이는 일반 부녀자들의 외출용으로 사용되었다. 생삼으로 거칠게 삼은 「삼신」, 절에서 만들어 신었다는데서 나온 이름인 「절치」도 거칠게 삼은 것이었다. 「탑골치」는 옛적 東大門 밖 탑골에서 삼은데서 나온 이름으로 썩 튼튼하게 잘 삼은 미투리였으며, 「무리 바닥」은 쌀 무리를 바닥에 먹인 것이고, 「紙총 미투리」는 「총」을 종이를 꼬아서 만든 미투리였다.¹²⁾

『世宗實錄』에서 보면 同王 10年 9월에 大司憲 趙啓生등이 上啓하기를 “옛 儒生들은 麻鞋를 신고 책을 들고 徒步하였으며…… 지금은 그렇지 않아…모두 靴(靴)을 신고 騎馬하고…”하였으니 이로써 草·麻鞋는 이에 아무리 精巧한 것이 있었다고 하여도 士人階級에서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成宗 3年의 「禁奢侈節目」에 麻鞋를 착용토록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사치가 심하여 麻鞋를 신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嶺南風俗에는 「藁履」를 신되 麻로 만든 것은 出入할 때 신었으니 儉素한 것이

*9 신미경. “조선조 신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6 p.43.

*10 星湖僊說. 卷之六 萬物門.

*11 李民樹역주. 「서경」 정음사 1981 p.70.

*12 유희경. p.384~385.

본받을 일이라 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麻履」를 부끄러워 함을 한탄했다.*13

또한 中宗 35년에 “……外間에서는 아직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金線草鞋를 보통 짚신처럼 여겨서 ……”라고 하여 짚신보다 더 나은 신을 신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다) 설피

이는 눈이 오면 눈 위에서 신던 신발로 짚으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것이 있으며 추운 북녘에서는 사냥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

3. 開化期

짚에 삼을 섞는다, 왕골과 삼과 짚을 섞는다, 또 다가죽에 紙縵을 섞어 삼는 짚신은 신분을 흐리게 한다하여 함부로 삼아 신지 못하게 하였던 것인데, 신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갑오경장 이후 「개화짚신」이라 하여 혼직초혜(混織草鞋)가 유행을 하게 되었다. 황짚과 왕골로 곱게 삼은 미투리는 남자용, 각종 재료에다 빗갈로 문양을 넣어 삼은 짚신은 여자용의 상등품으로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베신이나 갓신 이외는 잘 거래되지 않던 서울 혜전동에서는 오색으로 물들인 「왕골 미투리」며, 갓가지 재료를 곱게 섞어 삼은 짚신류를 진두에 장식하고 경기를 누렸다 한다. 발을 죄는 갓신 대신, 황짚과 왕골로 곱게 삼은 미투리는 개화기풍을 뽐내던 북촌 젊은 양반들의 아라모드였다.*14

그러나 양반은 바깥 나들이를 할 때 비록 다 낡아 떨어진 도포나 갓이라고 하더라도 꼭 의관을 갖추어 정제하고 나서야만 했다. 이런 궁색한 처지에서도 양반은 일반 서민처럼 짚신이나 미투리 같은 것을 절대로 발에 피어서는 안되게 되어있다. 하다못해 비올때 신는 나막신을 별이 째쨍한 맑은 날씨에 신고 나오면 나왔지 이를 어기지 않는 것이 양반의 생리이고 보면, 「개화짚신」은 일부 젊은 양반층에 국한되었다.*15

부녀자들 중에는 특히 첩들이 「개화짚신」을 즐겨

신었는데, 그 때문에 좋은 가문의 부녀자 일지라도 짚신을 신었으며 자칫 첩으로 오인을 받았다. 첩들이 草鞋를 즐겨 신었던 이유는 옛부터 본처들이 식어가는 남편의 사랑을 되돌리는 방법으로 첩의 베신이나 갓신의 코를 잘라오게 하였고, 그리하여 첩들은 배어갈 코가 없는 草鞋를 즐겨 신었다.*16

開化期 初에는 신에 별 변화가 없어서 일반 서민 계급에서는 짚신을 이후에도 오랫동안 신었음을 볼 수 있다. 梨花 歷代 流行의 初創期 時代의 모습을 보면, “비가 오는 날이면 굽높은 나막신을 신고 소풍을 갈 때에는 미투리를 신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미투리가 당시 활동하는 부녀자의 신이기도 함을 보여 준다.*17

짚신과 미투리에 대한 명칭은 지방별로 다양하였다. 먼저 짚신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면,

제주도에서는 짚신을 적신·짚신·짚세기·초신이라 하였고, 짚신의 種類로는,

비빔갓신 — 총을 따로 만들어 놓고, 삼을 적어 이어 놓은 짚신.

냄갓신, 붓갓신 — 신을 삼으면서 총을 내어 만든 짚신.

갸신 — 쇠가죽으로 총을 한 신.

세갓신 — 엄짚신을 말한다.

짚신의 부분 명칭도 달라.

신치기 — 신뒤축.

엄줄기 — 뒤쪽총과 뒤축 사이에 있는 굵은 총.

신돌 — 신날.

신돌 — 신들메

신돌갱이 — 당감잇줄.

갸 — 총.

뒷갸 — 뒤쪽에 있는 총.

앞갸 — 앞쪽에 있는 총.

신갱이 — 신울에 감는 짚, 왕골겹질.*18이라 하였다.

황해도·평안남도에서는 「분투」와 「따백이」신이

* 13 星湖僿說. 卷之六 萬物門.

* 14 이규태 「개화백경」 신대양사 1988 p.58~59.

* 15 李承草 「풍류세시기」 중앙일보사. 1977 p.85.

* 16 이규태 p.59.

* 17 이규태 「세상에 불쌍한 조선 녀편네」 신대양사 1988 p.254.

* 18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島編.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4 p.450.

있었다.

분투 — 어린이용으로 옥수수 이삭의 속껍질을 벗겨 여러가지의 물감을 들여 색색으로 만든 것으로 엮어 만든다. 가볍고 따뜻하고 폭신하여 어린이들에게 좋은 신이다.

따백이신 — 벗짚 껍기로만 삼은 짚신으로서 바다면은 삼을 섞어 엮어서 튼튼하게 만든다. 한둘래 삼을 때마다 죄음새로 다져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신을 삼는 데에는 특수한 수련이 필요하였고, 짚겨서 3년은 건딜 수 있는 것이었다.*19

강계지방에서는

베넛새기 — 날이 네줄이며 겨울철 눈길에나 신고 보통때는 신지 않는다.*20

미투리에 대한 명칭으로는 강계 지방에서 「배실총신」 「삼총신」 「무커리」 등이 있었는데,

배실총신 — 날(經)을 여섯 줄로 그리고 신총은 하얀 배실(삼배실)로 하고 삼(麻)으로 삼는다. 신발의 뒷꿈치를 「희겅(회나무 속껍질로서 빛이 회다)」 「가랫겅(가래나무 속껍질로 빛이 검다)」으로 감고 신총과 신총사이를 흰종이 또는 「희겅」을 가늘게 찢어서 감아 올린 단아한 신발이며 남녀 모두 신으나 여자것은 「희겅」 「가랫겅」을 섞어서 아름답게 무늬를 돋보이게 한다.

삼총신 — 신총을 삼(麻)으로 한 것이다.

무커리 — 신날이 네줄로 삼(麻) 아니면 「피겅(피나무 속껍질. 빛이 연한 검붉은 색)」만으로 삼기도 하고, 「피겅」과 삼을 섞어서 삼기도 한다. 주로 굵은일 할때 일상용으로 신던 것이다.*21

B. 風俗史의 意味

『星湖僿說』에 “…… 近古에는 부인들이 해마다 동지가 되면 시부모에게 신과 버선을 드렸으니, 이는 長至를 밝고 다니라는 뜻이다.” “… 국가에서 동짓날 신과 버선을 임금께 바치는 것은 수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옛부터 신고 다니는 물건을 어른에게 드림은 복을 맞이하라는 것이었고,*22 최근까지도 새색시가 처음 혼인하여 시댁 어른들께 버선을 선물하는 풍속은 남아있었다.

경기도 세시풍속에는 정월에 옛부터 두루마기, 도포, 버선, 대넙에 행전까지 갖추고, 신은 어른은 짚을 박은 가죽신 또는 미투리, 여자는 꽃신 또는 꽃미투리를 신기도 하고, 중류 이하에서는 고운 짚신을 신는 것이 통례였다.*23

또한 속담에도 짚신에 대한 풍속도가 나타나 있어, 조선조의 서민들은 층이 굵은 석새 짚으로 짚신을 삼았으며 [석새짚신에 구슬감기], 발이 편하도록 양쪽 양편의 층을 터서 코를 낸 세코 짚신을 많이 신었다.[세코 짚신 제날이 좋다.]

이밖에 “피는 짚신 삼으면서 잡아야 다 잡는다”는 속담으로 미투어, 자기 논의 피를 뽑아 짚신을 삼음으로써 버를 보호하고 짚신도 얻는 일거양득의 풍속도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4

“꿈에 신발을 잃으면그날 재수가 없다” “꿈에 신이 헤지면 자손과 노복이 병이 있다”라고 하여 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였다.

또한 길조어로서 “꿈에 짚신을 신으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신발을 우연히 거꾸로 신으면 출세한다”라고 하여 신에 복과 관련되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C. 形態의 分類

草·麻鞋의 歷史는 人類文化의 初期段階까지 逆及되는데, 이러한 歷史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생활주변에서 천연적으로나 농사의 부산물등을 通해 材料를 구하기가 쉬웠고, 材料의 活用이 용이하여 製品의 사용 범위가 넓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草鞋나 麻鞋의 본격적인 기틀이 마련된 것은 新石期時

* 22 星湖僿說 卷四 萬物門.

* 23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京畿編.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p.409.

* 24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1988 p.477~478.

* 19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黃海·平安南北編. 文化公報部文化管理局 1980 p.201.

* 20 金莉鉉 「강계지방의 풍속」 강계국민회간 1982 p.173.

* 21 金莉鉉 p.173.

代 後期인 B·C.1000年 농경기술의 전래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재료와 제작 기술의 발전 토대가 이루어지면서 朝鮮朝의 製品과 類似한 物件이 만들어졌다. 三國時代부터 농업의 주요생산이 되면서 必然적으로 草·麻를 이용한 生活 必需品 工藝品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 材料

가) 벼집

벼집은 벼과(禾本科)에 속하는 1년생 草인 벼(稻)의 副産物이며 벼의 學名은 오리자 사티바 엘(Oryza Sativa L.)^{*25}이다.

表面과 가장자리가 거칠고 葉舌은 2個로 갈라지며 벼집은 生活用品의 材料로 쓰인다. 벼의 品種은 수천에 달하나 우리나라의 在來鍾이 줄기가 길고 다루기가 용이하므로 手編工藝用으로 適合하다. 벼집은 햇볕에 말려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사용시에 검부러기를 털어서 없앤 후 浸水시켜 사용하면 부드러워 작업하기가 용이하다.

나) 왕골

사초(莎草)科에 속하는 1년생 草木으로 學名은 시페루스 이와사키 마키노(Cyperus iwasaki Makino)^{*26}이다. 韓國 특유의 工藝作物로 우리나라 어디서나 栽培가 가능하다. 여러 종류의 품종이 있으나 善山種이 成熟이 빠르며 草長은 100~200cm이고 品質이 우수하다.

採取는 莖皮가 약간 황색을 띠 무렵 맑은 날씨를 택하여 하며 採取한 왕골은 잎과 줄기로 分類하며 햇볕에서 2~3일간 충분히 말린 후 줄기를 통골로 쓰거나 껍질과 속을 분리하여 쓰거나 통골을 3등분으로 길게 쪼개어 쓰기도 한다. 완전히 乾燥된 재료는 3~4일간 밤에 이슬을 맞히고 낮에 햇볕에 말리면 부드러워지고 윤이 난다.

다) 칩(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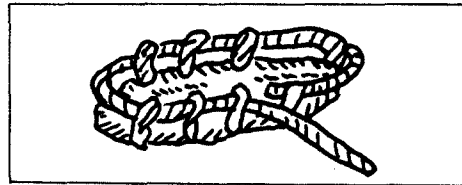
豆科에 속하는 落葉闊葉樹木으로 學名은 푸에라리아, 트리조브드(Pueraria Trilobd)^{*27}이다. 나무가 없는

山이나 平地에서 日光을 받아 곱게 자란 덩쿨이 품질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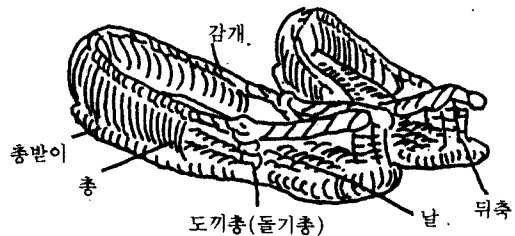
칩의 採取는 6~7월에 하며 採取된 칩을 삶아서 흐르는 물에 채워 놓는다. 그런 다음 꺼내어 풀속에 묻고 발효시키고 가끔 물을 주며 재운다. 꺼내어 浸水 시킨 후 脫皮하고 칩을 水洗한다. 속을 분리하여 다시 물에서 水洗하고 쌀뜨물에 넣었다가 세번 물에 씻는다. 그 후에 햇빛과 공기로 바랜다. 이상과 같이 가공된 葛絲는 破直하고 신선하며 독특한 광택이 있다. 또한 변색이 되지 않으며 염색이 매우 좋다. 특히 이 줄기의 속껍질을 「청울치」라 한다.^{*28}

2. 形態

草·麻鞋의 구분은 바닥에 세운 날의 수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바닥에 날 4줄 세운 것은 草鞋, 6줄 세운 것은 麻鞋라고 하며, 草鞋가 좀더 거칠고 투박하다. 총은 草鞋는 가늘지 않고 굵직 굵직하게 대략 26~30개 세우는 반면, 麻鞋는 50~60개 세워 차이가 있다. 특히 草鞋와 형태가 많이 다른 왕새기(왕발짚새기)(그림 3)는 총이 없으며 「감개」에 「돌기총



(그림 3) 왕새기 왕발짚새기



(그림 4) 각부분의 명칭 총받이 감개 총 돌기총 (돌기총) 날 뒤축

* 25 이장복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1980 p.107.

* 26 김희태 「신고공예작물학」 향문사 1976 p.123.

* 27 外村吉之介. 「葛布帖」 건설실업주식회사 p.12.

* 28 장숙주. 「草·麻鞋의 모티브를 응용한 “신”의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4 p.27~29.

(도끼총)이 여덟개 세워져 있다.*²⁹

草·麻鞋의 구조는 공통적으로 바닥에 신날을 세우고, 돌기총을 세운 위에 감개가 있고 날과 감개사이를 총으로 메꾸어 준다. 부분별 명칭은 그림4와 같다.

3. 製作課程

가) 도구

- ① 신골(큰골, 뒷골, 셋골)
- ② 신골 방망이

③ 꼬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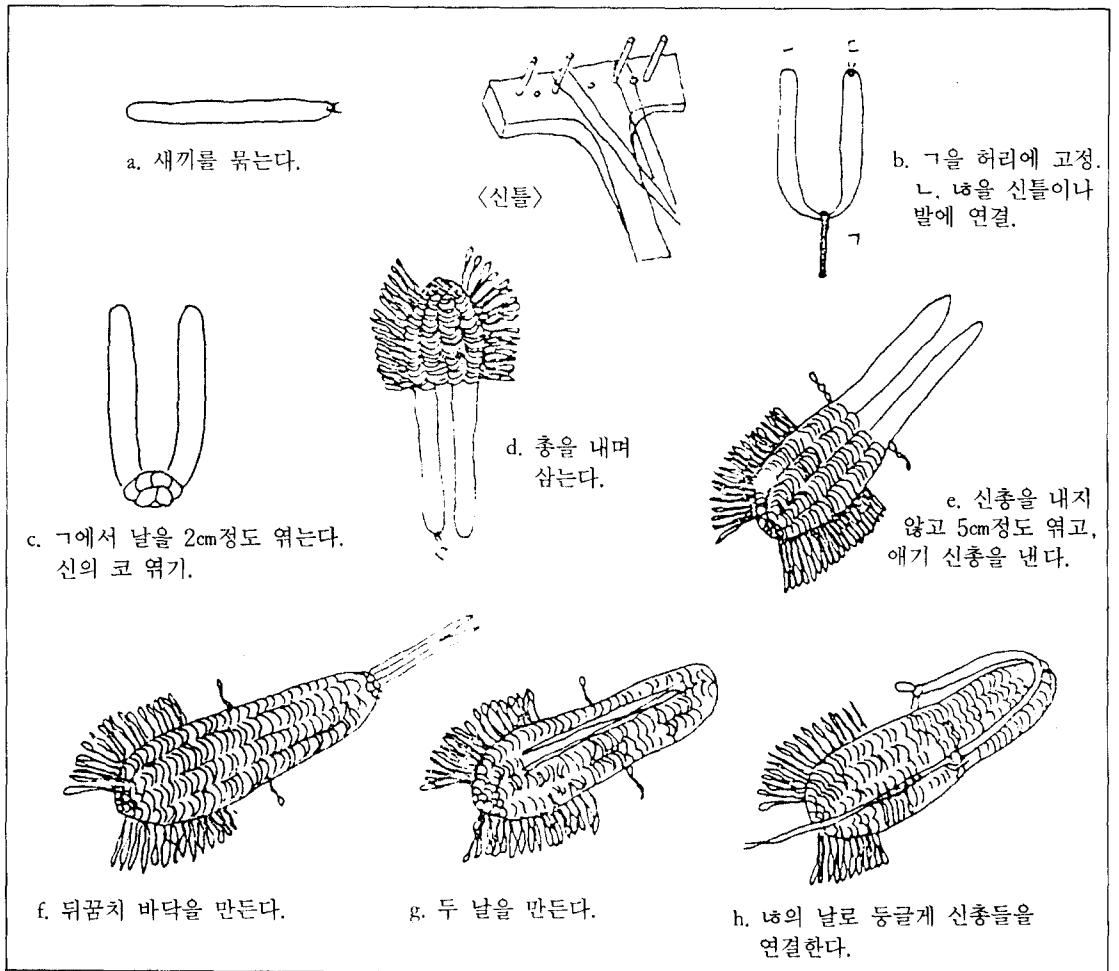
④ 칼

나) 제작과정

① 신날에 쓸 새끼를 팔(八)자형으로 묶어 허리띠에 연결한다.

② 양쪽으로 난 고를 책상다리 한 두 무릎에 연결하여, 끈 연결한 부분이 오른쪽 무릎에 오게 한다. 이를 「땡개미다리」라고 하며, 이 녀줄의 날이 곧 신바닥 틀이 된다.

③ 팔자의 가운데 부분에 짚을 넣고 2cm가량 돌려



(그림 5) 草鞋 製作과정.

* 29 황호근 「한국장신구미술연구」 일지사 1980 p.438~439.

가며 삼는다. 새끼줄을 날로 하고 짚을 씨로 하여 씨 줄이 날줄의 위·아래를 번갈아 드나들게 하고, 다시 돌려서 아래·위로 엮는 것을 반복한다.

④ 날이 고정되면, 무릎에 걸었던 고를 엄지 발가락에 옮겨진다.

⑤ 총을 내며 삼기 시작한다. 즉 신총에 짚을 덧대어 한쪽 날에 끼우고 이를 날의 아래·위로 단단하게 삼아 고정한다. 네번째 날에 닿으면 다시 신총을 끼워 반대편으로 되돌려 짜준다.

⑥, ⑤를 거듭하면 앞꿈치가 완성된다. 짤때 가끔씩 잡아당겨 단단하게 삼는다.

⑦ 앞꿈치가 다되면 신총을 내지 않고 짚으로만 5cm가량 짚는다.

⑧ 두 줄의 애기 신총을 낸다. 앞꿈치를 짤 때와 같은 이치로 2번만 한다.(지방에 따라서는 도끼신총이라고도 한다.)

⑨ 다시 짚으로만 바닥을 짜, 뒷꿈치 바닥이 되도록 한다.

⑩ 뒷꿈치 바닥이 짜지면 너줄의 새끼줄을 발가락에서 끌러 두줄씩 합하여 두날로 만든다.

⑪ 이 두날의 새끼줄을 날로, 짚을 씨로 하여, 날의 위·아래로 짜 신높이만큼 올렸을때, 날(새끼줄)을 신총 끝을 벌려 틀 사이에 끼워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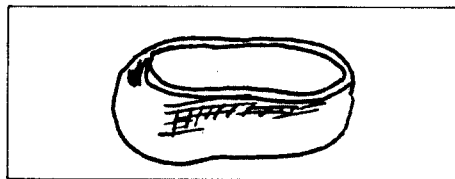
⑫ 신총들을 두개의 날로 등글게 연결한 다음 적당한 길이로 잡아맨다.*30

Ⅲ. 隣接兩國의 草·麻鞋

A. 中國

中國에서는 古代로부터 履의 材料에 布製·藁製 등이 사용되어왔다.*31 履는 본래 디디다, 밟다의 의미인데, 『易經』에도 “서리를 밟아...”라고 있어 본래 신발류 전체를 지칭하는데, 그 재질이 어떠하던가에 履라고 칭하며, 특히 麻製를 麻履, 草나 藁로 만든 것을 草履라고 칭한다. 漢代의 麻履에는 보통 끈을 달

았고 그 모양은 그림6의 草履와 같다.*32



(그림 6) 草履

또한 麻履 혹은 草履는 일반 서민용으로 평상시 주로 사용하였고, 긴 거리를 보행할 때에는 같은 모양의 草履를 많이 사용하였다.*33 지리적으로는 주로 南中國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황하 유역의 북부 중국과 양자강 유역의 남부 중국이 민족, 풍토, 생산 조건등이 꽤 다른 기반 환경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당시 광대한 중국의 판도에는 東·西·南·北의 각각의 달랐던 문화가 고유하게 발달하고 있었고 『시경』 기록에 의해서도 당시 강남지방에서는 皮革이 의복 재료로 사용되어 졌다는 것은 회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藁나 草로 만든 履物은 동아시아 농경사회에서 주로 사용되어졌는데, 革靴를 상용하였던 서역에서도 그 사용된 예가 보여진다. (그림 7)과 같은 唐代의 草鞋가 당시 서역에서는 일반적인 履物로 중국에서 이주해 들어간 漢人 농민에 의한 것이었다.*34

南朝時代에는 屨가 있었는데, 이는 麻 전에는 藁로 만든 草履인데, 주로 下賤에서 사용한 것으로 『廣韻』에는 “屨는 草履이다”라고 있다.*35

唐時代에는 일반 민중은 주로 鞋를 신었는데, 농민이나 노동자는 草蓐으로 짠 鞋, 芒履나 草鞋를 사용했다.

杜甫의 시에 “내가 홀로 오랑캐에 있었는데 靑鞋 布襪이 그때부터 신었다”라고 있다. 또한 『太平廣記』 55에는 「玉堂間話」을 인용한 “강남에 芒草가 있는

* 30 신미경 “조선조 신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6 p.20~21.

* 31 杉本正年 p.131.

* 32 앞글 p.235.

* 33 앞글 p.235.

* 34 앞글 p.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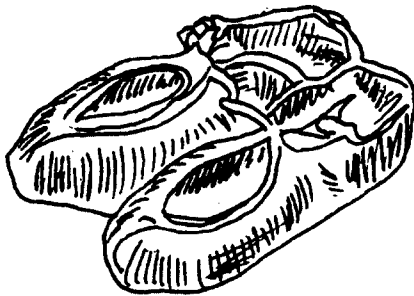
* 35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中世編. 文化出版部 1984 p.53.

데, 가난한 자가 그것을 캐어다 履의 선을 짚다. 토지가 아주 나쁘고 습해, 풀은 물에 질겨 가난한 자가 많이 신었다”라고 있다. 따라서 杜甫의 시의 草鞋도 필시 芒草로 짠 芒履와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芒草는 『山海經』에 “그 모양이 棠와 같고 붉은 잎모양이 芒草이다”라 있고, 또한 孟浩然의 시에 “손에는 白羽扇 잡았고 걷는 다리에는 青芒履 신음”이라 하였다. (그림 7)은 中國 新疆省 吐魯番 106號墳에서 출토된 麻鞋인데, 높이가 5.3cm, 길이가 26.5cm 넓이가 7.8cm나 되는 것이다. 이 麻鞋는 모두 삼실(麻絲)을 엮어서 만든 것이라 하는데 어느 時代의 麻鞋라는 단정은 없으나 106號墳이 唐代 것이므로 麻鞋는 唐代 것이라 한다. 唐代의 墓石 柳線刻畫像 또는 辟畫像에 이런 麻鞋形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新羅時代에 平民이나 軍卒들이 이런 麻鞋를 신었다고 믿어진다.

中國의 草·麻鞋는 우리나라 三國時代에 신었던 形態와 많이 다르지 않았으리라 보아진다. 그러나 日本은 우리나라와 中國에서 사용되어졌던 것과는 다른 소위 샌달형식이 발달하였고, 그 기후 풍토에 맞는 형태로 발전되어 갔다.

B. 日本

日本은 원래 신발없이 맨발로 생활하였으나, 中國 文化의 영향을 받은 奈良·平安時代에 들어오면 履



* 36 황호근 p.243.

* 37 앞글 p.192.

물이 풍부해져 이때부터 草鞋·草履의 발달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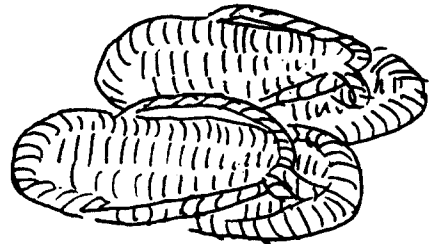
1. 草履(그림 8)

日本의 履物 中 옛날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것으로, 특히 平安時代에 들어가면서 종류가 풍부해졌다.

草履의 형태는 식물로 짜고, 바닥에 굽이 없이 편평하며 발가락을 끼우도록 되어 있으며 뒷꿈치가 없어 마치 日本의 나막신의 형태와 같다.*38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나 中國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日本 고유 文化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日本에서 짚신과 나막신의 뒷꿈치가 없는 것은, 그 風俗이 戰鬪를 숭상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뒤로 물러서지는 않는다는 뜻을 따온 것이라 한다.*39

재료로는 농촌에서는 최고로 손질한 藁로 짜고, 竹 껍질, 菅, 蔴, 풀 등으로 한다.

바닥에 가죽을 넣는 것은 重草履라 하는데, 이는 비가 올 때 사용한다.



(그림 8) 竹草履

2. 草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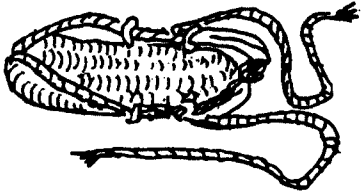
草鞋는 바닥만 짚으로 삼아서 들메끈을 두른 일본식 짚신으로, 총을 세우지 않은 우리나라의 왕새기와 비슷하다.

보통 ① 발을 넣는 바닥, ② 발꿈치 닿는 부분, ③ 착장을 돕는 끈, ④ 끈이 통과하는 乳부분의 4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그 중 그림 9와 같은 것은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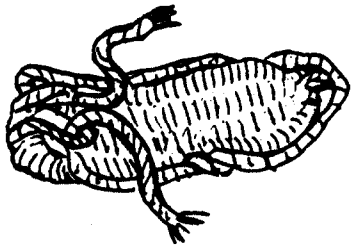
* 38 「服裝大百科事典」(上) 被服文化協會編 昭和46 p.614.

* 39 海行摠載 日本記遊 卷- 行禮.

4부분을 다 갖춘 것이고, 그림 10은 다만 끈이 통과 하는 구멍이 없이 나머지 세 부분을 갖춘 것이다.



(그림 9) 乳草鞋



(그림 10) 乳없는草鞋

일반적으로 藁를 짜서 만들고 藁鞋라고도 불려진다. 주로 遠거리 보행용이고, 일반 서민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신발이며 장례때에는 貴人도 사용하였다.

「草鞋」의 文字도 일찌기 「令義解」나 「廷喜式」등의 문헌에 보면 麻·稻藁등으로 만든 淺를 가르치는데, 아마 草鞋의 文字와 함께 中國에 기원을 둔 것이라 보아진다.*40

3. 雪沓(그림 11)

눈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온력 있는 藁를 사용하여 만든 靴 형태의 신발이다. 雪沓외에도 藁沓, 雪履, 淺履, 深履, 爪掛, 踵掛등이 있다. 특히 爪掛는 눈에서 신는 슬리퍼 모양의 짚신이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 동상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 雪踏과 같이 草履바닥에 가죽을 넣은 것도 있었다.*41



(그림 11) 雪沓

IV. 결 론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古代에서 開化期까지 草·麻鞋에 관하여 문헌적 고찰 및 형태적 분류에 대해 살펴보고, 인접한 中國과 日本의 草·麻鞋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草·麻鞋는 古代로부터 농경 민족인 우리나라의 지리적·풍토적 조건에 적당하여 조선시대를 거쳐 개화기까지 신겨졌다. 즉, 우리나라의 履物은 草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草鞋는 통칭 「짚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짚신」「양골 짚신」「부들 짚신」「고은 짚신」「엄짚신」등의 이름이 있으며, 지방별로 명칭과 종류가 특색있다. 麻鞋는 통칭 「미투리」라고 하는 것으로 「삼신」「절치」「탑골치」「무리 바닥」「지총 미투리」등이 있다.

形態는 草·麻鞋 모두 바닥에 날을 세우고, 총을 세웠다. 다만 草鞋는 바닥의 날이 4줄이며 총은 굵직 굵직하게 26~30개 세운 반면, 麻鞋는 날이 6줄 총은 50~60개 세워 짚신보다는 고급품이다.

朝鮮時代에는 一般男女가 가장 흔히 使用하던 것으로 그 나름대로 品質의 구별이 있어 精製品은 兩班家에서 使用하고 영성한 것은 庶民들이 使用하였다. 다만 開化期에 등장한 「개화짚신」은 개화기품을 뽐내던 젊은 양반들이 애용하였고 1930년대까지 계속 존재하였다.

비록 양반계층까지 널리 선호받지는 못하였으나 신에 관한 풍속사적 의미는 복과 관련되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인접한 中國과 日本에서도 草·麻鞋의 使用을 볼 수 있는데, 中國에서는 古代의 신의 형태가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여 唐代의 出土遺物을 통하여 우리

*40 「일본풍속사 사전」 p.695.

*41 「服裝大百科事典」(上) p.614.

나라의 草鞋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은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전혀 다른 소위 샌달식의 草·麻鞋의 사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리적·풍토적 영향 및 신에 대한 문화적 의미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가진 草·麻鞋가 朝鮮末의 사회적 혼란과 서양 문물의 도입으로 우리 古有의 傳統性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本 研究는 과거에 一般人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草·麻鞋를 분석함으로써, 材料의 다양화, 美的 効果와 아울러 技術의인 면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양식을 開發하고 우리 文化 遺産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傳統의 계승뿐만 아니라 우리 古有의 것을 現代 生活에 이용할 수 있는 契機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1) 金利鉉, 「강계지방의 풍속」 강계국민회간 1982.
- 2) 김희태, 「신고공예작물학」 향문사 1976.
- 3) 「服裝大百科事典」(上) 被服文化協會編. 昭和46.
- 4)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古代編. 文化出版局 1981.
- 5)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中世編 文化出版局 1984.
- 6) 석주선, 「韓國服飾史」 寶晉齋 1971.
- 7) 星湖僊說 卷四 萬物門.
- 8) 신미경, “조선조 신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6.
- 9) 外村吉之介, 「葛布帖」 건설실업주식회사.
- 10) 유희경,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3.
- 11) 이규태, 「세상에 불쌍한 조선 녀편네」 신태양사 1988.
- 12) 이규태, 「개화백경」 신태양사 198.
- 13) 李民樹역주, 「시경」 정음사 1981.
- 14) 李承草, 「풍류세시기」 중앙일보사 1977.
- 15) 「일본풍속사 사진」.
- 16)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1980.
- 17) 장숙주, “草·麻鞋의 모티브를 응용한 신의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4.
- 18)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1988.
- 19)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京畿編.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 2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島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 21)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黃海·平安南北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0.
- 22) 海行摠載.
- 23) 황호근, 「한국장신구미술연구」 일지사 1980.